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정치경제운용의 재구성

남윤복*

목 차

- I. 서론
- II. 일대일로 추진과정과 추진배경
- III. 일대일로 다중적 논리
- IV. 일대일로 추진상황
- V. 결론

한글초록

일대일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통망을 형성하는 종합적인 경제노선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전략에는 새로운 경제운용 방식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세계 정치경제체제를 주도하여 최종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미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중화질서 구축으로 세계경제운용의 재편을 주도하는 정치경제, 군사안보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연계이다. 국내적으로 일대일로 건설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소수민족의 독립적 성향도 약화시키기 위한 복안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연선국가와 지역

* 국민대학교

발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세계질서 재구축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러한 점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안모델로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확대에 그 의미가 부여된다.

주제어

일대일로 전략, 중국의 꿈, 정치경제운용,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I. 서론

일대일로¹⁾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중국 13.5계획의 핵심내용으로 발표되었다. 이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을 무대로 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²⁾ 이 계획

1)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노선(一帶)과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이다. 즉 육상과 해상의 연선국가들을 철도, 도로의 육로와 항만, 해로 등을 연결하는 경제노선이다. 본고에서는 일대일로로 표기한다.

2) 시진핑이 지향하는 이념은 중국의 역사이면서 민족의 위대성이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한마디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 한다. 2012년 ‘부흥의 길(復興之路)’이라는 개막식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꿈이라는 슬로건을 처음 제시했다. 새로이 출범하는 중국 공산당 상임위원회 행사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부흥을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전통에 담겨있는 힘과 영광을 민족이라는 모습으로 재현하고 부활시키려는 의도이다. 중국의 꿈이든, 일대일로 전략이든 중국은 인류는 운명공동체란 이론의 적극적인 제창자이며 실천자로서 세계정치경제질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타인 링겐, “이념화하는 시진핑, 중국에 대한 경고” 『중앙일보』(2016) 참고, 趙可金, “通向人類命運共同體的一帶一路” 『當代世界』(2016), http://theory.people.com.cn/BIG5/n1/2016/0615/c40531-28446_116.html(검색일: 2017.04.04)

은 2013년 9월-10월 시진핑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 대해 공동건설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실천을 위해 아시아기초설비투자은행건립을 제안하여 연선국가와 지역발전의 기초시설 등을 위해 지원하며, 동맹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공동건설을 한다.³⁾라고 공표했다. 2015년 3월 28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등의 관련기구가 국무원을 거쳐 발표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 전망과 행동의 공동건설 촉진(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에 의하면, 일대일로는 동아시아경제권과 유럽경제권 중간의 광대한 내륙국가의 공동협작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폭넓은 행동규칙이며, 관련 국가는 고대실크로드 범위에 제한하지 않고, 각 국가 및 지구적인 조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동건설 성과혜택이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일대일로는 공동건설을 전제로 하면서 중국정부가 세계무대를 향해 정치경제적인 강대국으로써 그 질서를 재편 및 규정하는 행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점지역과 협작방향 모색을 위해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소통노선을 3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발트해)까지,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 지중해까지, 중국-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까지로 구분된다.⁵⁾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 중점방향은 중국에 이어진 해안에서

3) 习近平, “携手建设中国-东盟命运共同体—习近平主席在印度尼西亚国会的演讲 (2013) <http://www.fmprc.gov.cn/ce/cegv/chn/bjzl/t1084356.htm>(검색일: 2017.03.30)

4)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联合发布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503/20150300928878.shtml>(검색일: 2017.03.30)

5) 일대일로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프리카 등 65개국과 44억 명의 인구

부터 남해를 거쳐 인도양, 남태평양까지를 포함하여 유럽까지 이어진다. 관련국가 및 지역과의 중점적인 합작내용은 오통⁶⁾을 실현하는 것이다. 연선국가와의 공동협조 발전계획과 정책소통의 강화,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연결과 소통)실현 우선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연선국가에 기초 인프라시설을 우선 건설하는 것인데, 그 원활함 위해 연선국가와 무역 및 상호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교류로 관련 국가와 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일대일로는 이 전의 개혁개방을 넘어 전 방위적인 확대개발전략의 경제정책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광범위한 개발도상국 및 참여국가와 합작하여 공동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여 전 지구적 정치경제흐름에 대한 새로운 성장논리 정립을 내다보고 있다. 국가정책의 개방, 외교전략, 구조조정, 목표지향점을 향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체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확대개방, 선린우호, 평화로운 발전, 지구적 성장, 조화세계 등의 포괄적 이념을 주창하면서, 정치외교의 새로운 방향과 국내외 국면을 통합하여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내놓은 지구적 지역공간을 놓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에 대해 왜 그러한 논리여야 하는지? 그 추진배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주

로 세계인구 약 63%에 해당하며, 전 세계 경제규모의 29%에 해당하는 약21조 달러를 점유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대륙의 가교로서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등 국제경제협작 회랑(노선)을 공동조성 하려는 전략이다.

- 6) 첫째, 태평양에서 발트해, 인도양을 이어주는 교통노선, 둘째, 무역과 투자 활성화, 셋째, 화폐유통의 강화, 넷째, 정책소통 강화, 다섯째, 인문적인 유대 및 민심소통 등이 주요 내용이다.

国家发展改革委,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503/>(검색일: 2017.03.30)

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피곤함과 혼란이 중국경제의 내외적인 발전 및 성장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정치경제 및 외교 전략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관련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시사점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연구는 주로 일대일로 전략의 함의를 말하고 있는데, 중국판 마셜계획으로써 국내에서 과잉된 생산능력을 전 세계에 확대수출하려는 전략으로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세계무대에서 대국으로써 경제실력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계획이고, 국내 경제성장 및 유지를 포함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요약된다. 즉 간단한 경제성장의 공동향유를 넘어서 관련국가 간 정치와 안보 벨트로 강조하고, 과잉된 국내산업능력을 위한 출로제공을 통해 국내경제를 진작시킬 뿐 아니라, 대외정책목표로써 광대한 개발도상국과 연계를 통해 중국이 중심역할을 위한 전략으로 강조된다.⁷⁾ 중국내 연구도 과도한 산업 및 생산구조에 출로를 제공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정학적 정치 및 성장균형으로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성장전략의 변화, 경제무역협작을 포함한 새로운 국면조성, 중국의 지역경제 협작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통해 연선국과와 이익 공동체, 운

7) Shannon Tiezzi, "The New Silk Road: China's Marshall Plan?" *The Diplomat*, (2014) [http://thediplomat.com/2014/11/the](http://thediplomat.com/2014/11/the-new-silk-road-chinas-marshall-plan/)(검색일: 2017.03.22), Lucio Blanco Pitlo III, "China's 'One Belt, One Road' to Where?" *The Diplomat*, (2015) <http://thediplomat.com/2015/02/chinas-one-belt-one-road-to-where/>(검색일: 2017.03.22), Jacob Stokes, "China's Road Rules: Beijing Look West Toward Eurasian Integration," *Foreign Affairs* (201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sia/2015-04-19/chinas-road-rules>(검색일: 2017.03.23)

명 공동체 등을 위시한 일체화 벨트 조성 등에 주도적 역할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⁸⁾ 일반적으로 일대일로로 제기 과정, 경제적 차원에서의 일대일로가 가지는 영향, 일대일로와 유라시아와 관련하여 취해야하는 협력방안, 일대일로가 지니는 외교정책 함의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⁹⁾ 주로 일대일로가 지니는 경제적 의미나 외교 전략과 관련지어 논의 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새로운 국면 하에서 지정학적 정치경제전략에 유용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경제운용의 위기와 관련하여 중국이 정치경제적 측면

8) 赵可金, “广西可将‘一带’与‘一路’有机衔接”, 『凤凰国际智库』(2016), 胡鞍钢·马伟·鄢一龙, “丝绸之路经济带:战略内涵定位和实现路”,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期(2014), pp. 1-8, 王缉思, “西进中国地缘战略的再平衡”, 『环球时报』(2012.10.17), 阮宗泽, “美国亚州 再平衡战略前景论析”, 袁新涛, “一带一路建设的国家战略分析”, 『理论月刊』, 第11期(2014), pp. 5-9, 潘亚玲, “美国亚太再平衡战略的动力变化以及中国之应对”, 『现代国关系』, 第1期(2015), pp. 29-34, 高虎城: “深化经贸合作共”, 『世界经济与政治』, 第4期(2014), pp. 4-20, 创新的辉一带一路战略构建经贸合作新格局”, 『国际商务财会』, 第6期(2014), pp. 5-7, 申现杰·肖金成, “国际区域经济合作新趋势与我国一带一路合作战略”, 『宏观经济研究』, 第11期(2014), pp. 30-38, 雷建锋, “一带一路与中国战略能力的新拓展”, 『外交评论』, 第5期(2013), pp. 41-49, 阮宗, “中国需构建怎样的周边”, 『国际问题研究』, 第2期(2014), pp. 13-22, 李同昇·龙冬平, “中亚国家地缘位置与中国地际援助”, 第2期(2015), pp. 29-35. 泽高飞 缘战略的若干思考”, 『地理科学进展』, 第3期(2014), pp. 302-309, 李建民, “丝绸之路经济带 欧亚经济联盟与中俄合作”, 『俄罗斯学刊』, 第5期(2014), pp. 8-15, 邢广程, “理解中国现代丝绸之路战略:中国与世界深度互动的新型链接范式”, 『世界经济与政治』, 第12期(2014), pp. 4-20, 林民旺, “印度对一带一路的认知及中国的政策选择”, 『世界经济与政治』, 第5期(2015), pp. 41-52, 李中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中的中亚因素”, 『世界知识』, 第12期(2015), pp. 41-43

9) 신중호,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 (2015),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一带一路),” 『시선집중 GS&J』, 제195호(2015), 정성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및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6호(2015.5.1)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문화 부문에서도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총합체로 읽혀진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전략을 구상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다양한 전략의 정립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재편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은 향후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운용 방식의 재구축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고찰이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새로운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와 경제논리 구축을 위해 중국의 힘이 작용하는 연선 주변국을 통해 확장해 가면서 그 역할을 대체하고자 한다.”로 가정한다.

이것의 설명을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일대일로 전략의 배경 조건과 그 추진과정을 검토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두드러진 신자유주의 경제운용의 피곤함의 누적과 불평등의 격차는 중국경제의 발전환경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치경제 환경조건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의 배경조건과 추진과정은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3장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이 지니는 다중적인 전략의 정립을 외교의 새로운 전략, 전 지구적 경제성장의 새로운 전략, 구조조정의 새로운 전략 등의 내용으로 고찰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새로운 논리구축을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교, 동반성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위한 다중적인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끄는 대체자로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엿 볼 수 있다고 본다. 4장에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추진성과를 살펴본다. 일대일로 전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

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써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하여도 주목되지만, 중국의 힘이 미치는 주변지역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논리 구축과 세계질서 재편성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 된다. 마지막 결론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새로운 세계질서 재구축의 논리로 이어질지에 대해 언급한다.

II.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과 배경

1.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중국의 최고 권력교체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체제를 재구성하는 계획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2013년 9월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동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건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설립을 ASEAN국들과 공동추진 제안이다.¹⁰⁾ 이미 동년 4월 시진핑은 아시아 보아오 포럼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중국은 주변국가 및 지역과 가급적 신속하게 호연호통을 수립할 것이고, 역내 금융투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조직하여 경제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라고 했다.¹¹⁾ 일대일로 전략이 포함하는 기본 요소와 방

10) 2015년 5월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영도소조 지휘자인 장가오리(張高麗)가 발표한 6대 경제회랑(노선)은 1) 중국-몽골-러시아 회랑, 2) TCR회랑, 3)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회랑, 4) 중국-인도차이나 회랑, 5) 중국-파키스탄 회랑, 6)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회랑이다. 2015년 12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위시한 서유럽 국가들이 동참한 57개국 회원들이 AIIB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16년 3월 3일 열린 양회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공식 추진했다. 习近平, “同印度尼西亚总统苏西洛举行会谈”, 『新华网』(2013).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10/02/c_117587755.htm, (검색일: 2017.03.25)

향을 제시하여 지역 내 경제일체화 등을 강조한 것이다.¹²⁾ 이어진 중국 최고위층의 행보에서 일대일로 전략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된다. 2013년 10월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제16차 아세안지도자회의 강연에서 기초시설개설 조건에 필요한 금융문제로 AIIB를 제기했다.¹³⁾ 2013년 11월 중공제18차 제3중전회는「중대문제해결에 관한 전면적 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決定)」에서 주변국가 및 지역의 기초시설을 위한 호연호통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실크로드경제 벨트,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촉진하여, 전 방위적 개방을 위한 새로운 국면 형성을 요구했다.¹⁴⁾

2014년을 전후로 역동적으로 일대일로와 관련한 기구건립과 회의 및 보고회가 개최된다. 2013년 11월 아시아태평양(APEC)경제협력 조직위원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시진핑은 강연에서 호연호통

-
- 11) 习近平, “主席在博鳌亚洲论坛2013年年会上的主旨演讲”, 『新华网』(2013)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4/07/c_115296408.htm(검색일: 2017. 03.25)
- 12) 习近平, “俄语国家媒体热议习近平在纳扎尔耶夫大学演讲”, 『人民网』(2013) <http://cpc.people.com.cn/n/2013/0907/c164113-22841760.html>(검색일: 2017.03.30)
- 민간교류의 중요성은 장더장(張德江)은 홍콩을 방문에서도 강조 되었다. 그는 2106년 5월 18일 일대일로 고위급포럼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과 국가발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일대일로의 시장기회를 포함해야 하고, 일대일로 정책을 위해 종합서비스 및 자금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의 인문교류를 통한 민심의 단합을 유도하고, 중국과 협하여 일대일로 시장을 공동 개척하자고 요구했다.
- 13) 李克強, “李克強总理在第16次中国东盟(10+1)领导人会议上的讲话”, 『新华网』(2013)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10/10/c_125503937.htm (검색일: 2017.03.30)
- 14)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決定”, 『新华网』(2013) http://news.xinhuanet.com/2013-11/15/c_118164235.htm(검색일: 2017. 03.30)

을 강조했다. 중국이 건설해야하는 것은 호연호통인데, 길을 닦고 다리를 놓을 뿐 아니라, 평면적이면서 일선연결에서 그치지 않고 기초시설, 제도계획, 인원교류 등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며, 정책연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유통, 민심상통 등 5대 영역과 다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도로 등의 기초시설 하드 연통, 제도 측면을 포함하는 소프트 연통, 인원이동의 인연통도 추진 될 것이다¹⁵⁾라고 설명했다. 동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와 외교부가 연합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고, 섬서, 광서(陝西, 广西)등 서부의 9개 성(省) 및 시(市)와 장수, 푸젠(江苏, 福建)등 동부 5개성(省)의 관련자들은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토의가 진행 되었다.¹⁶⁾ 2014년 10월 10일 국무원은 시안(西安)에서 관련부서와 구체적인 업무회의를 갖고,¹⁷⁾ 2014년 11월에는 시진핑이 직접 중앙재경영도소조 제8차 회의를 주관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시대적인 요구와 각 국가가 신속한 발전을 희망하는데 있어 창의적으로 조율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대한 발전무대를 제공하며, 유구한 역사적 염원과 인문적인 기초를 갖추고, 중국의 경제와 연선국가와 이익을 함께하는데 충분한 전략이다.¹⁸⁾라는 것이다. 중국 등 21개국 정상

15) 习近平, “联通引领发展伙伴聚焦合作：在加强互联互通伙伴关系东道主伙伴对话会上的讲话”, 『新浪网』(2014) http://news.xinhuanet.com/ttgg/2014-11/08/c_127192119.htm(검색일: 2017.03. 30)

16) “国家发展改革委与外交部联合召开推进丝绸之路经济带和海上丝绸之路建设座谈会”, 『国家发改委网站』 (2013) http://www.sdpc.gov.cn/xwzx/xwfb/201312/t20131216_570632.html, (검색일: 2017.03.30)

17) “张高丽在西安主持推进 一带一路建设工作座谈会”, 『新华网』 (2014) http://www.sn.xinhuanet.com/2014-10/11/c_1112786033.htm, (검색일: 2017.03. 30)

18) 习近平, “中央财经领导小组第八次会议”, <http://politics.people.com./7n/n/2014/1106/c70731/html>(검색일: 2017.03.24)

베이징에서 아시아 투자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결의에 이어, 시진핑은 혁신적 사고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동 은행 건립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기초설비건설 제공자금으로써 경제 합작을 촉진한다는 점을 밝혀.¹⁹⁾ 2015년 1월 6일 제1차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기금 운용이 시작되었다.

2015년 2월에는 일대일로 건설의 총괄기구인 영도소조(領導小組)를 조직하고, 당서열 7위인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를 총책임자로 맡겨 추진하고 있다.²⁰⁾ 같은 해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공동정책인「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를 통해 일대일로 전략의 의미, 목표 및 방식을 제시 했다. 이에 따라 리커치양(李克強)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을 위해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신속한 호연호통, 국제 물류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관련지역의 경제회랑을 구축한다고 제기 했다. 또한 국가개발위원회는 2015년 내에 지방정부를 향해 일대일로와 관련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는 실시방안을 제기 했다. 즉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의 시대적 배경, 공동건설의 원칙, 논리적 골격, 합작체제, 중국에 의한 전 지구적 개방태세의 전망을 제시했다.²¹⁾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중국 내 과잉산업에 대한 출로제공으로

19) 全国人民代表大会 와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李克强, “2015年政府工作报告”, 『人民网』(2015) http://www.famer.com.cn/ywzt/wlh/tt/201503/t20150305_1016647.htm (검색일: 2017.03.24)

20) “张高丽努力实现一带一路 建设良好开局”, 『新华网』(2015) http://news.xinhuanet.com/2015-02/01/c_1114209284.htm (검색일: 2017.03.25)

21) 国务院,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2015), “国家发改委已与18省份建立推进国际产能合作委省协同机制”(2016) http://www.sdpc.gov.cn/gzdt/201612/t20161215_830154.html (검색일: 2017.03.23)

해외이전을 통해 연선국가 및 지역에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으로써 중국정부정책의 주요 골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신자유주의 경제운용의 한계상황과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적 대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대일로 전략인지 배경을 살펴본다.

2. 일대일로 전략 제안의 배경조건

중국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대가가 각 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²²⁾ 이러한 환경은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00년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경제의 신속한 추격현상과 전 지구적 성장환경변화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중국에게 일대일로 전략으로 요구된 것이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중국경제는 기본적인 수치규모가 증가했다. 게다가 인민폐의 환율 증가치 추세가 미국달러 평가량에 비추어 중국경제 추격속도가 큰 폭으로 상승되어 중국경제는 세계 무대에서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집단의사표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추

22) 중국은 시진핑이 2014년 5월 허난성(河南省)에서 언급한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를 추진 중이다. 신창타이는 고속성장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질서수립을 말한다. 신창타이 내용으로 연 7~8% 정도의 성장속도로 전환, 계층 간, 도농 간 소득 격차 축소 및 해소, 서비스 및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경제성장에 대한 제도개혁 및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전환으로 생산성 향상, 지하경제,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과잉공급 및 시장 침체 등 중국의 경제문제 해결방향을 담고 있다. "习近平首次系统阐述新常态", 『新华网』(2014)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11/09/c_1113175964.htm, (검색일: 2017. 04.03)

격은 중국의 주요 언론이 중국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을 2020년 까지 중국 GDP 총량 4만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1인 평균 GDP 3000달러에 달할 것 보았다. 2014년 중국의 GDP는 10만억 달러를 돌파하여 1인 평균 GDP가 7000달러를 넘어선 통계로 발표되고 있다.²³⁾

이러한 중국의 추격속도는 2000년대 세계경제사의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 10억을 훨씬 넘는 인구 대국이 세계경제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중국 GDP가 세계 성장치 공헌으로 본다면 2001년 8.9%에서 2013년 38.1% 까지 상승했다. 세계 성장공헌 추세의 경우 2001년 17.1%에서 2013년 67.2%까지 성장했지만, 2013년 미국과 기타 브릭스 등 주요국 국가는 이 지표로 각각 10.8%와 6.9%로 이며, 유럽과 일본 측은 0%를 밑돈다. 중국의 총 소비측면에서 세계적 성장량 공헌 추세 치는 2001년 5.3%에서 2013년 28.4%까지 상승했다. 2013년 미국과 기타 브릭스 등 주요 국가의 본 지표는 15.9%와 14.9%에 그쳤다.²⁴⁾ 2014년에는 구매력평가 기준에서 중국의 GDP는 미국의 17조 4천 1백 60억 달러 보다 많은 17조 6천 3백 20억 달러를 기록했다.²⁵⁾ 세계 금융 위기 후 선진 국가는 심각한 구조적 제약을 받거나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등 브렉시트와 같은 경제공동체 및 단일통화체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운용방식은 세계경제성장을 이끄는데 한계에 닿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2% 이지만, 기타 브릭스 등 주요국가의 경우 11.3%, 유럽지역은 0%에 가까우며, 일본은 마이너스로 보았을 때 분명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성장의 최대 공헌

23) OECD, <https://data.oecd.org/>(검색일: 2017.03.25)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검색일: 2017.03.25)

24) OECD, <https://data.oecd.org/>(검색일: 2017.03.25)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검색일: 2017.03.25)

25) 국제통화기금(IMF), https://kr.sputniknews.com/korean.ruvr.ru/news/2014_10_09/278411128/(검색일: 2017.03.25)

국가이다.²⁶⁾

1980-2011년에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률과 비하면 성장 속도가 낮아졌지만, 세계 경제 성장이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에 이르는 고속성장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했고,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9%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2010년 이후 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속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무역 수출입 형세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수출입 총액과 수출, 수입이 각각 -3.3%과 -2.1%, -4.7%수치로 보도되고 있다.²⁷⁾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0.2% 낮아진다. 경착륙의 기준을 중국 성장률이 반으로 꺾이는 상황으로 보면, 세계경제 성장은 1% 가까이 하락한다. 중국의 경착륙이 세계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는 의미이다.²⁸⁾ 광대한 개발도상국은 세계적 경제성장에 대한 실제적인 공헌도를 상승시키고 있고, 향후 성장의 잠재력도 매우 큰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전면적인 새로운 국면 대응을 위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일찍이 1990년부터 물류를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을 위한

26)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1%로 이다. 중국경제는 6.7%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성장에서 중국비중이 39%를 차지한다. 기타 국가의 성장기여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미국의 성장은 2.2%에 불과하다. 세계경제성장을 (3.1%)에서 0.3%를 차지 할 뿐이다. 유럽이나 일본은 세계경제성장 기여도는 미국보다 적다. 스티븐로치, “세계경제 중국의 장단기 부양책 절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2/2016090201530.html (검색일: 2017.03.25)

27) 楼继伟, “中国结构性改革已经取得明显成效”, 『中国经济网』 [http://www.ce.cn/\(2016\)](http://www.ce.cn/(2016)), 汪同三, “如何看当前宏观 <http://www.科学网>』(2016) <http://www.cssn.cn/>(검색일: 2017.03.25)

28) 스티븐로치, “세계경제 ,중국의 장단기부양책 절실” 참고,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2/2016090201530.html(검색일: 2017.03.25)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미 1994년 4월 중국지도부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이 방문했을 때, 현대 실크로드 공동건설, 광대한 아시아유럽문화교류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동시에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한 길임에 대해, 현대화된 철도로 중앙아시아국가를 긴밀하게 연결하는데 공동노력과 이 물류노선을 통해 아시아-유럽 양 대륙 간의 관계증진을 표명했다. 1996년 아시아주 연합 및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신철도실크로드방안을 제기하여, 새로운 아시아유럽대륙을 이어주는 가교건설에 대하여 지지했다.²⁹⁾ 1998년 10월 동쪽의 중국 상해에서 시작해서 서쪽의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 서유럽 등 20여 개국을 관통하는 총길이 27,000미터로 연결하는 현대통신타타르라고 불린 아시아유럽대륙의 전체 구간에 광케이블을 개통했다. 1998년 8월 25일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의 정상회담이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중국 측은 지구적인 경제 합작의 추진과 발전을 통해 고대 실크로드의 부흥을 추진한다고 제기했다. 2000년 7월 연합국이 신아시아유럽대륙을 잇는 동서발전과 합작전략토론회에서 서부 대개발과 신아시아유럽대륙을 잇는 개발 및 개방문제에 대해 「친황파오선언(秦皇 島宣言)」을 발표했다.³⁰⁾ 또한 2005년 유럽아시아경제포럼이 중국 시안(西安)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국제포럼은 중국의 실크로드 부흥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³¹⁾ 이를

29) “新亚欧大陆桥十五年发展历程”, 『大陆桥物流联盟公共信息平台』(2012), “1960年代联合国 就提出类似设想”, 然而 于当时冷战国际环境未能有实质性推进, <http://www.landbridgenet.com/wenku/2012-07-13/1864.html>(검색일: 2017.03.25)

30) “新亚欧大陆桥十五年发展历程”, 『大陆桥物流联盟 公共信息平台』(2012) <http://www.landbridgenet.com/wenku/2012-07-13/1864.html>(검색일: 2017.03.25)

31) 何茂春·张冀兵, “新丝绸之路经济带的国家战略分析中国的历史机遇: 潜在挑

계기로 2007년 유럽아시아경제포럼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몽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이 물류인프라 공동건설에 합의했다. 2008년 192억 달러를 중국과 유럽대륙 간 현대적 실크로드 건설에 투자를 발표했다. 2011년 11월 18일, 총리 원자바오(温家宝)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제14차 중국과 동맹국 영수회담에서 중국 측이 30억 위안화를 중국-동맹 해상합작 기금으로 중국-동맹국이 다층적이고 방위적인 해상합작 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³²⁾

미국의 아시아와 태평양 재 균형 회복전략에 초점을 두고, 중국학계는 서진, 남하(西进, 南下)의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대일로 구상에 대한 연구로 삼을 것을 제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태평양기구는 세계무대에서 경제부문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확대를 수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세에서 미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회복과 재 균형전략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지구적인 패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부문의 증가가 고조되고 있고, 지역 내 일부국가는 기회를 보아가며 중국과 영토분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주변 환경 보호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인 상황으로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국제관계 연구자에 의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 균형전략에 대해 차별하게 대응하면서 정면충돌을 피하고, 교묘한 게임을 진행하면서 협력해야할 때 협력하고

战与应对策略”,『人民论坛』, 23期(2013).

32) 冯创志, “建设海上丝绸之路是中国南海政策亮点”, 『中国网观点中国』, 2013. http://opinion.china.com.cn/opinion_84_83584.html. (검색일: 2017.3.25)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은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견실한 실력을 증진시키면서, 자발적 진취, 종합적 시책, 우호적인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미국의 재 균형전략 압력을 와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평화로운 발전의 실현이 중국의 꿈(中國夢)이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내외환경을 통합해 내는 것이다. 또한 중-미가 신형 대국관계 구축의 창의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관계조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균형적이고 장기적인이며 안정적 발전에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국가가 중국영토주권 문제에서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여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강국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³³⁾

또한 외부환경변화에 초점을 두고 국제관계학계의 서진과 남진 전략에 관한 토론회에서 왕지스(王缉思)는 미국 전략의 중점은 동이(東移), 유럽, 인도, 러시아 등 동쪽을 향해(東望) 중점을 두고 있을 때,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에 있는 중국은 안목을 연해강역에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기존의 경쟁대상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선진적이고 전략적 계획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서부와 남부주변을 전략적 확장과 동시에 호혜적인 주변을 보호하면서 남, 중, 북의 3개 노선을 구분하여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를 신속하게 건설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³⁴⁾ 황인웨이(黃仁偉)는 중국은 아시아의 기초시설인 도로망 건설을 통해야 아시아 경제일체화의 하드웨어 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10+1 혹은 10+3의 자유무역지

33) 阮宗泽, “美国亚太再平衡战略前景论析”, 『世界经济与政治』, 第4期(2014). p. 20 <http://www.aisixiang.com/data/76913.html> (검색일: 2017.3.30)

34) 王缉思, “西进: 中国地缘战略的再平衡”, 『环球时报』 2012.10.17.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2-10/3193760.html. (검색일: 2017. 3.25)

구 시스템을 통해 중국시장과 아시아시장의 일체화를 강화해야 하며, 비교우위로 기초적인 아시아 분업체계를 형성하며, 인민폐의 국제화를 통해 주변 개발도상국과 지역의 자본시장 일체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⁵⁾ 일대일로 구상의 공동건설 전략 제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담론형성을 통한 준비를 했고, 직면한 국면 돌파를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주변국가 및 국제조직이 관련 영역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에 이어 중국, 아시아부터 전 지구에 이르는 지속적인 발전으로 성장목표에 도달하는 명분을 일대일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다.

III. 일대일로의 다중적 전략

1. 경제외교 신전략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서남아시아, 인도 및 동남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 선점을 위한 경쟁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 및 물류운송과 관련한 기초시설건설은 주로 영토, 민족, 테러 및 종교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접경지역이 대상이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과는 중국의 서진정책-러시아의 남하정책의 경쟁도 존재하고 있다. 서아시아의 국가들과도 인도양 해로를 놓고 인도와의 경쟁도 해야 한다³⁶⁾. 이와 관련하여 동북

35) 黄仁伟, “美国亚洲战略的再平衡与中国战略优势再评估”, 『现代国际关系』, 第8期(2012), p. 35-36. <http://www.aisixiang.com/data/60875.html>. (검색일: 2017. 3. 25)

36) 李晓·李俊久, “一带一路与中国地缘政治战略的重构”,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2015), pp. 31-32. 참고

아 및 동남아를 포함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재 균형 정책대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AIIB의 대립 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대일로 전략은 연선국가에 대한 개방 확대를 통해 쌍방향의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실무를 추진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³⁷⁾ 중국은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한 국제적인 공간과 외부환경을 확장하여 직면한 국면을 전환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발전의 실현을 보장하고 제공하면서 경제외교의 신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 후 세계정치경제 환경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역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영향력 확대가 중국입장은 주변외부환경의 두드러진 변화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중국의 새로운 개방 확대와 그 것을 관철하고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외교방침으로 종합해 내는 것으로도 읽혀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협력과 공동 번영의 방침, 공동모색과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행동들을 결합해 내려는 점에 중국이 선두가 되어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도 보인다. 동시에 국내적인 의미에서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 평화로운 발전관계

37) 이러한 노력은 국가 고위급 간부들이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강조 되고 있다.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는 2015년 12월 1일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시험지구 건설 및 혁신업무 추진현황 시찰을 위해 광둥성 선전시를 방문하여, 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연해국가와 공동으로 중대형 프로젝트 및 산업클러스터 등을 추진하여 금융, 세관, 품질관리 및 검사 등 분야의 개선과 지원을 통해 연해국가의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張高麗, “深圳市中興通訊股份有限公司調研創新驅動發展的相關情況”, 『人民網 - 民日報』 (2015). <http://cpc.people.com.cn/BIG5/n/2015/1202/c64094-27878834.html> (검색일: 2017.04.03)

로 이끌어 자국에게 순탄한 발전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공고하게 구축 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 개념 및 계획과 실시는 중국주도의 공동 성장을 위한 순탄한 성장방향을 확고히 하는 것에 대한 최적의 광고 적 언어이며 새로운 경제운용 구축을 위한 이론과 실천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로 전략은 광범위하면서 새로운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개발확장과 내용에 대한 측면에서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선진국에 대한 개방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부터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는 이중 개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외교 측면에서 일대일로 구상이 포함하는 합작의 중점이 정책, 기초시설건설, 무역, 투자, 금융 등 측면에서 그 내용을 결합해 내야하는데, 이와 관련한 운용 시스템과 경제외교 내용의 조합과 전략을 구축하고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개발도상국이 발전의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상황을 염두해 둔 전략인 것이다.

2. 전 지구적 성장의 새로운 전략

일대일로는 세계 주도권 경쟁에서 선점과 안보전략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적인 경제성장 국면과 중국 경제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무게중심이 이중전환이란 표현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 광대한 개발도상국이 지구적 경제성장에서 상대적인 공헌도를 높임에 따라, 경제성장 중심은 이미 선진국에서 신흥경제체제와 개발도상국가로 이동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광대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측면의 무역성장 중심은 선진국에서 신흥경제체제와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³⁸⁾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다. 기초시설부족과 체제적 한계와 정책상황이라는 양대 제약에 잠재적인 국면에 처해 있으나, 이러한 국면에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과 연선국가의 외교 및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새로운 해결 방향과 방안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과 대외수주를 포함하는 지구적 측면에서 중국의 외부적 경제 무역환경도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성장구조 수치로 보면,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성장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개발도상국의 성장 잠재력이 최대 무역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중국수출 성장 속도가 7.2%까지 하강하고 있는데, G7국들은 4.4%로 하강했으며, 기타 브릭스국가는 6.1%, 기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12%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이 15%로 가장 높은 성장치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 측면에서 2000년 G7국가, 기타 선진국,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국가, 개발도상국가 등 4부문의 경제체제는 48%, 35.2%, 2.7%, 13.9%로 각각 점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 33.9%, 30.8%, 6.2%, 29.2%로

38) 2000년 대 초 세계 GDP 성장을 구성하는 것 중 선진국과 신흥 및 개발도상국이 80%와 20%의 공헌으로 구분된다. 선진국가 중 G7과 기타 선진국은 61%와 19%의 공헌으로 구분되고, 신흥과 개발도상국 중 브릭스국과와 기타 개발도상국가는 12%와 8%로의 공헌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2010-2013년 세계경제성장 구성 중 선진국과 신흥 및 개발도상국가는 19%와 81%로 역전하여 공헌한 것으로 구분된다. 선진국가 중 G7과 기타 선진국가는 12%와 7%로 공헌한 것으로 구분된다.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공헌율은 35%, 기타 개발도상국가 공헌율은 약 56%와 25%로 구분된다. 그중 중국의 공헌율이 약 35%이고,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공헌율이 약 60%로 이다. 10여 년 간 세계적 성장 공헌율 구분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인 2:8 의 비율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OECD, <https://www.google.co.kr/search?q=oeed>(검색일: 2017.03.30)

변화되었고, 개발도상국이 19%로 상승했다. 수출량 증가 공헌비율은 2000-2001년 G7국가, 선진국, 브릭스국가, 개발도상국의 공헌비율은 46.3%, 32.1%, 3.1%, 18.5%로 구분되었으나, 2013-2014년에는 24.3%, 225%, 6.4%, 46.8%로 전환되었다.³⁹⁾ 개발도상국의 증가 공헌율이 53%로 절대다수가 브릭스국가 이외 광대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 대외 공정수주의 지역별 분포로 보면, 광대한 개발도상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2013년 중국은 370억 달러의 대외공정수주 체결완성의 지역별 분포 수치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주는 각각 47%, 34.9%, 9.7%, 6.0%, 1.5%,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주금액이 가장 높은 10대 국가는 앙골라,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알제리아, 파키스탄,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모두 개발도상국가에 속하고 있다.⁴⁰⁾ 2016년 9월 공표한 상무부(商務部) 자료에 의하면 일대일로 관련국의 직접투자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15년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3%상승했다.⁴¹⁾ 시진핑은 2014년 11월 일대일로 건설을 아시아 비상의 양 날개로 비유한다면, 오연호통은 양 날개 혈맥이라고 할 수 있다.⁴²⁾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전 및 합작의 양 날개를 기본이념의 방침으로 하여, 중국주변과 아시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병목 현상을 탈피하고, 연선국가경제에 대해 평화로운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역할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39) OECD, <https://www.google.co.kr/search?q=oeed>(검색일: 2017.03.30)

40) 商務部, 國家通計局, 國家外匯管理局: 『2013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41) “中國企業發掘商機：華南地區問卷調查結果” <http://china-trade-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검색일: 2017.04.03)

42) 习近平, “联通引领发展, 伙伴聚焦合作”, 『人民网』(2014) <http://cpc.people.com.cn/n/2014/1109/c64094>(검색일: 2017.3)

이러한 동태적 의미에서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 연선국가와 상호 호혜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경제운용체제를 형성 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환경 전환의 배경에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성장환경을 배양하고 구축하여, 향후 위기시대를 맞이하더라도 지구적 결속력의 실현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3. 구조조정의 새로운 전략

중국은 국제적 산업분화의 심화와 세계적인 공급사슬 변화란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러한 점에 있어 비교우위의 규칙에 순응하고, 과도한 시장시스템에 의한 부의 편중을 완화하는 역할, 산업 간의 전환이 무역경제의 공동 진전을 위해 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은 단계적으로 성장을 모색하였고, 1인 평균수입이 1980년대 200여 달러를 밑돌던 수준에서 2014년 7천여 달러의 국제중등수준으로 상승했다.⁴³⁾ 이러한 과정에서 전면적인 개혁심화와 완전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시장체제의 역할과 정부주도 역할이 발휘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구조, 기술구조, 무역구조가 결합된 시스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폭넓은 플랫폼으로 새로운 환경이 제공 될 것으로 보고, 구조정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을 위한 원가구성과 비교우위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43) OECD, <https://www.google.co.kr/search?q=oeed>, (검색일: 2017.3.30)

중국산업과 경제구조조정은 반드시 진일보한 활성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⁴⁴⁾ 이를 위해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각자 처한 발전단계가 상이함에 의해 자본유동과 산업협력 및 생산능력도 본국의 구조조정과 경제발전 추진에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과 연선국가가 다른 업종 및 특정산업에 있어서 낙후한 지역 간의 투자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의 보편적이면서 편리화 과정이 요구되는데, 각종산업과 투자협작의 클러스터에 대한 공동의견과 공동건설에 대한 새로운 모형 형성을 위해 중국과 연선국가는 산업협력 능력과 구조조정의 폭 넓고 향상된 무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일부 노동집약형 산업 혹은 산업지구는 자금, 토지가격 등 원가요소상승에 따른 무역을 할 수 없어, 이웃한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⁴⁵⁾ 즉 80-90년대 이미 이용한 바 있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국제적 전환 단계에서 발전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부문을 연선개발도상국이 이어받아 인민폐의 외환기능까지도 창출하여 중국의 입장을 확대코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경제의 대외지향적인 것과 국제적으로 방대한 이익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변경지구 및 연선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수반하여, 중국내 지역경제 구조조정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내륙과 변경지역 및 일부성시를 중심으로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조정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

44) 储殷, “大国威信从何而来”, 『南风窗』, 第19期(2015), pp. 27-31

45) 郑蕾·刘志高, “中国对一带一路沿线直接投资空间格局”, 『地理科学进展』, 第5期(2015), pp. 65-75 참고

와 자연조건 및 지리적 제약으로 일부지역은 고도성장의 분배가 열악한 경제적 환경이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일부지역의 지역경제 증가 속도는 전국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있다.⁴⁶⁾ 도시-농촌 간 격차 및 지역별 격차, 과거 선부론이란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따른 동부 연해 지역과 서부내륙지역 간의 격차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여러 측면에서 격차완화 및 해소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중서부에 대한 개방 및 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도시-농촌의 간격을 좁혀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까지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 전략이다. 일대일로 전략이 이러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우선 고려대상과 환경조건이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국지역경제구조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와 조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방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IV.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상황

일대일로 전략은 이념과 목표 등의 전체적 구도가 합작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조직(ASEAN, EU, AL)의 지지를 기반으로 아시아 투자은행 설립에서 실크로드 기금 수립, 다수의 프로젝트까지 여러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관련한 기초시설 관련법률 및 제도까지 개선하고 있다.⁴⁷⁾ 중국내 추진을 보면 제18대 당 대회에서 중국정

46) 高虎城: “深化经贸合作共创新的辉煌——一带一路战略构建经贸合作新格局”, 『国际商务财会』, 第6期(2014), pp. 9-15.

47) 혼합소유제(국가소유의 국유기업재산을 집단자본이나 비공유자본에 분배하는 민영화 개혁)와 관련한 회사법 및 「기초시설과 공공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PPP자문서비스기관 모집에 관한 규정(关于征集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专业咨询服务机构的公告)」

부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업무지도조직을 설립하고, 그것의 추진을 지도하고 협조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도록 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일대일로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을 제정했다. 2015년 4월 국가세무총국은「일대일로 발전전략의 원활한 세수업무와 관리업무결과에 관한 통지(关于落实一带一路发展战略要求做好税收服务与管理工作的通知)」⁴⁸⁾를, 2015년 5월 국가해관총부서도 일대일로 건설업무 실시방안에 대한 16개 조치조항 제출, 2016년 6월 교통운수부서는「교통운수부문의 일대일로 전략계획 실시방안(交通运输部落实一带一路战略规划实施方案)」⁴⁹⁾ 제정, 국토자원부의 중국토지조사국은「일대일로에 관한 자원과 기타 중요 광산자원 지도(一带一路能源和其他重要矿产资源图集)」⁵⁰⁾등을 조직하고 편성했다. 각 지역에서도 일대일로 실시방안과 국가 계획과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장(新疆)을 실크로드경제벨트 핵심지역으로 하는 삼통도(三通道, 북, 중, 남 세 통로)를 주요노선으로 건설하고, 삼기지(三基地, 국가대형 석유가스 생산가공기지, 대형석탄전기화학기지, 대형풍력전기기지)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오대중심(五大中心, 교통허브중심, 상업물류중심, 금융중심, 문화교육중심, 의료서비스중심)을 중점으로 하며⁵¹⁾, 10대 수출

등 부처별 사업추진과 관련 제도정비를 마련하였다.

48) “國家稅務總局”,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575644/content.html>(검색일: 2017.03.30)

49) “21世纪经济报道”, http://www.globalview.cn/html/societies/info_3596.html(검색일: 2017.03.30)

50) “地质调查报”, <http://www.ngac.cn/GTInfoShow.aspx?InfoID=5164&ModuleID=83&PageID=11>(검색일: 2017.03.30)

51) “三通道、三基地、五大中心”, 『新疆网原创』, <http://www.xinjiangnet.com.cn/2015/0522/1403200.shtml>(검색일: 2017.3.30)

신장(新疆)은 서쪽(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으로 가는 육상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물류, 교통, 교육, 문화, 과학 등의 중심지로 주목되고 있다.

산업지구를 플랫폼으로 하여 다양한 자원 및 다각적인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크로드경제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삼고 있다. 푸지엔(福建省)은 취안저우(泉州)를 시범지역으로 하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 핵심으로, 푸저우(福州)신구와 핑탄(平潭)을 중점기능지역을 종합시험지구로 하는 대륙과 해상을 통한 중대형 기초시설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⁵²⁾ 2015년 6월 광둥성(广东省)은 「일대일로 건설 참여 실시방안(广东省参与建设一带一路的实施方案)」⁵³⁾을 공표하고, 업무방안과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외교 강화에도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후반기에 중국기업은 일대일로 48개연선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여 투자액이 120.3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비금융 부문의 대외직접투자도 15.3%를 차지하고 있다.⁵⁴⁾ 주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57개국에서 3,059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체결금액이 591.1억 달러에 달하는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요 부문은 전기기초시설, 주택건설, 통신시설, 석유화학공업, 교통운수 등의 기초인프라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파키스탄과 경제노선을 위한 4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구축에 합의하고,⁵⁵⁾ 상하이 협력기구(SCO), 메콩강

52) 푸지엔(福建)은 양안(중국내륙, 타이완), 주지앙삼각주(珠三角), 창지앙(長三角), 환보하이(環渤海)등 지리적인 위치에서 대외 개방이 활발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설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실크로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 “福建省21世纪海上丝绸之路核心区建设方案”, 『澎湃新』, http://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검색일: 2017.03.30)

53) 『中國日報』, http://world.chinadaily.com.cn/2015guangdong/2015-11/26/content_22520311.htm(검색일: 2017.03.30)

54) 李晓, 李俊久, “一带一路與中國地緣政治經濟戰略”,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2015). p. 53.

지역 경제협력지도자 회의, 중국-중동유럽국가지도자회의 등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⁵⁶⁾

일대일로 전략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치앙 총리 등 국가지도자들은 연이어 주변국을 방문하여 상호동반자관계 강화, 합작 포럼 등을 진행했다. 즉, 우호적인 관계와 지역발전 등 다각적인 문제를 관련 국가와 회담을 갖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대해 쌍방이 공동의식에 이를 것을 강조 했다. 이에 따라 64 개국이 확고한 지지와 적극 참여하여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국가연맹, 유럽연맹, 아랍국가 연맹 등 다수의 국제조직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특히 영국은 역사적으로 실크로드와 관련이 없거나,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아니지만, 잉글랜드북부신흥계획을 일대일로 전략과 연결되길 주동적으로 제기했다. 시진핑 주석은 맨체스터 방문요청 시 비연선국가도 일대일로 공동건설 참여에 대해 환영했다. 영국은 실크로드의 정신 뿐 만아니라 지구화의 새로운 모델형성을 예측했다.⁵⁷⁾

55) 이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구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까지 3천 킬로미터 구간에 철도와 도로 및 가스관을 건설하여 경제회랑을 건설하는 대공사이다. 경제노선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과다르항은 중국이 개발해서 40여 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항구이다. 이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중심 거점으로써 미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고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이다. 박선미, “중국, 파키스탄에 50조원 투자, 일대일로 이정표”, 『아시아경제』 (2015). <http://m.asiae.co.kr/view.htm?no=2015041709250535137#ba>(검색일: 2017.04.03)

56)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러시아-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상하이에서 2001년 6월에 설립한 협력기구로써, 주요 목적은 상호신뢰 및 우호증진, 협력관계 구축, 지역 내 안보강화 및 안전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이다. 馮玉軍, “上海合作組織的戰略定位與發展方向”, 『現代國際關係』, 第11期(2016), pp. 9-10.

57) 중국의 제조업이 집중된 저지양성(浙江省) 이우시(義務市)에서 영국을 연결

일대일로 전략의 오통건설 측면의 진전을 보면, 중국은 국내 각종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대일로 연선국의 합작과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소통, 시설연통, 무역소통, 금융소통, 민심상통 등 주요 영역의 합작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국가는 지역합작 및 변경합작의 비망록 및 중장기 무역합작계획 요강에 서명했다. 따라서 주요 시설연통 프로젝트도 이미 결과를 보이고 있다.⁵⁸⁾ 2014년 13월 6일, 태국의 입법회의에서는 중국-태국 철도합작 양해비망록 초안을 비준하고, 2015년 7월 1일 중국-태국 철도합작 제5차 회의를 열어 제1기 프로젝트를 2015년에 착공에 들어갔다. 투자무역의 편리성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마카오, 스리랑카, 이스라엘 등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도 가동되고 있고, 동유럽연맹과도 중국-동남아시아연맹의 자유무역지구로의 승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하는 첫 화물열차가 2017.1.1개통됐다. 이 열차는 신장(新疆)과 아라산커우(我拉善口)를 거쳐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을 통과 영국 런던에 이르는 18-20 동안 1만2451 킬로미터를 통과한다. 이 철도화물운송열차는 항공운송비용보다 50%가량 저렴하고, 해상운송보다는 절반의 기간이 단축되며, 통관업무 또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 노선의 개통은 일대일로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표명한 것이다. 이미선, “항공운송비용의 50%, 영국도 반한 중국의 화물열차 외교”, 『Chosun Biz』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2429.html(검색일: 2017.04.03)

- 58) 중대한 프로젝트의 조기성공을 이룬 곳은 1)동남아시아에서 철도, 도로, 항구, 전기철조망, 천연오일가스의 파이프라인 시설(중국과 미얀마의 철도, 도로, 자오피아오항(皎漂港)과 특구, 시아투커항(西哈努克港)과 개발구, 중국-라오스-태국을 잇는 철도, 인도네시아 항구와 개발구, 태국의 뽀용공업구가 완성되었다. 2)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철도, 중국-카자흐스탄을 잇는 도로 2기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C선, D선 수송관이 완공되었다. 3)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천연가스 수송도의 동서부 노선, 4)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도로, 원자력 발전소, 공업단지 등이 완공되었다.

-중국-인도-미얀마를 이어주는 경제회랑 건설, 실크 산업지구 건설을 인도와 추진, 여행 및 민간 영역의 합작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도 협력하고 있다.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호연호통 청사진을 비준하고, 각 국가와「아태경제협력조직의 아태자유무역베이징 노선추진(亚太经合组织推动实现亚太自贸区北京路线图)」에 대한 공동인식과 동의로 자유무역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국제적 인프라를 건설하여 관련국과 상호 결속하면서 미국을 우회 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미국의 우방이 참여한 일대일로 계획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은 중국에게 미국을 견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선국가의 자금유통 측면의 진전이다. 2015년 6월 29일 이 기구는 57건의 의견을 창립 멤버국가의 관련자에게 동 은행설립 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여 2015년 10월 9일까지 53개국이 서명하여, 2016년 1월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아시의 개발도상국의 기초인프라 시설투자 영역에 존재하는 거대한 갭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크로드 기금 설립은 2014년 12월 29일 중국외환보유, 중국투자유한 책임공사,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이 공동출자한 실크로드기금 유한책임공사를 베이징에 설립등록하고, 정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자본금 100억 달러를 실크로드 연선국가기초시설, 자원개발, 산업합작 및 금융합작 등 호연호통과 관련한 중점 프로젝트에 금융투자로 지원했다.⁵⁹⁾ 주목되는 점은 자금지원 시스템에 있어 인민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민폐 사용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59) KIEF북경사무소,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kiepBeijOffBri&nttId=185638>(검색일: 2017.03.30)

민심상통 측면의 활동을 보면, 일대일로를 주제로 하는 국제정상회담, 포럼, 토론회, 박람회, 문화의 해, 예술절 등의 활동을 개최 및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는 교육, 과학기술, 문화, 여행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사회적 공동의식을 증강하고, 서로 다른 문명 및 문화를 주고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있다. 나아가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무역 활성화를 추구하며,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국가 및 지역 경제협력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회복 및 재균형 전략으로 꾸준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군사 및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군사 및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압박한다고 인식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유럽에 대한 정치경제적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세계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약44억 명을 연결하여, 경제 규모 21만 억 달러로 세계 GDP의 60%, 수출의 23.9%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⁶⁰⁾ 또한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 및 서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구상은 2049년 건국 100주년을 겨냥한 새로운 대장정이다.

V. 결론

일대일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통망을 형성하는 종합적인 경제노선으로써 최종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끄는 전 지구적 새로운 정치경제질서를 위한 지구공동체 형성을 2049년 달성목표로 한다.⁶¹⁾ 일대일로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복

60) 王義桅, “剖析一帶一路: 2049年建成共同體”, 『中國評論新聞網』 (2016)

<http://hk.cmmt.com/doc/1041/7/4/3/104174362.html?coluid>, (검색일: 2017.04.04)

원이 완성되면 64여개 국가가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경제권역으로 엮인다. 이 과정에서 도로와 항만 등을 위시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된다. 2049년을 완성 기점으로 볼 때 건설규모는 1조 4천억 위안에 달한다. 진행 중인 건설수주만도 3천여 개에 달한다. 이는 중국 국내적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관련한 상황들은 산업구조 문제 해소와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구조적 과잉산업 문제를 해소로 이어질 것이다. 기초인프라 등의 건설공사를 주도하고 확보하여 국내 시장 활성화효과와 기업의 해외 진출효과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통해 전형적인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에너지 대량 소비국으로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세계를 향해 제안 한 것이다. 즉,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서 중아시아의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시아 무역과 원유 운송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원유수입의 80%가 해상실크로드 항로로 운송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곳을 통해 중동과 남중국해 해로를 개척하고, 중국-중아시아 가스관이 완공되어 운송 중에 있다. 중국은 천연가스자원 수입의 40%를 중아시아에서 운송된다. 육상에서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중아시아지역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연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⁶²⁾

이처럼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순조로운 자원 확보, 과잉된 산업

61) 王義桅, “剖析一帶一路: 2049年建成共同體”, 『中國評論新聞網』(2016)

<http://hk.cmtt.com/doc/1041/7/4/3/104174362.html?coluid>(검색일: 2017.04.04)

62) “2017全地球經濟展望”, 『光銀國際』 <http://www.cebi.com.hk/image/cebi-economic10>(검색일: 2017.04.04)

설비문제 및 잉여생산능력 해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 지역균형발전, 소수민족의 융합 및 안정화, 중국주도의 경제권 재형성, 위안화의 보편적 사용 추진, 주변국의 평화로운 발전 및 안보, 미국의 견제, 21세기 새로운 중화질서 구축, 시진핑 체제의 세계경제질서 재편 및 주도 등 정치경제, 군사안보의 총체적인 전략적 연계이다.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변신은 크게 보아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2001년 WTO 가입하고, 새로운 대외개방이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중심의 경제발전에 협력할 것을 유도하여 세계경제질서 재편성, 연선국들의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지정학적 군사안보 및 통치안정 등이 포함된 대내외적 목표들이 융합된 전략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적 공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중국 간 경쟁구도에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및 재편성 전략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미국의 중아시아로의 진출 및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 영유권 분쟁문제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빈번한 갈등상황에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연선국가와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과로 이어진다면 인류가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성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된다. 따라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은 중국이 세계 정치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도가 임혀진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안모델로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해 제시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치경제모델에 대해 더욱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스타인 링겐. “이념화하는 시진핑, 중국에 대한 경고”. 『중앙일보』. (2016.04.06)
- 신종호.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2015).
-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시선집중 GS&J』. 제 195호(2015).
- 정성삼. “중국 일대일로 추진계획 및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5-16호(2015).
- 高虎城. “深化经贸合作共『世界经济与政治』”. 第4期(2014).
- 雷建锋. “一带一路与中国战略能力的新拓展”. 『国际援助』. 第2期(2015)
- 李建民. “丝绸之路经济带欧亚经济联盟与中俄合作”. 『俄罗斯学刊』. 第5期(2014).
- 李中海. “丝绸之路经济带建设中的中亚因素”. 『世界知识』. 第12期(2015).
- 李晓·李俊久. “一带一路与 中 国地缘政治经轉略的重构”.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2015).
- 林民旺. “印度对一带一路的认知及中国的政策选择”. 『世界经济与政治』. 第5期 (2015).
- 潘亚玲. “美国亚太再平衡战略的动力变化以及中国之应对”. 『现代国关系』. 第1期(2014)
- 申现杰·肖金成. “国际区域经济合作新趋势与我国一带一路合作战略”. 『宏观经济研究』. 第11期(2014).
- 阮宗泽. “美国亚州 再平衡战略前景论析”. 『世界经济与政治』. 第4期(2014).
- 袁新涛. “一带一路建设的国家战略分析”. 『理论月刊』. 第11期(2014).
- 储殷. “大国威信从何而来” 『南风窗』. 第19期(2015).
- 馮玉軍. “上海合作組織的戰略定位與發展方向”. 『現代國際關係』. 第11期(2016).
- 邢广程. “理解中国现代丝绸之路战略: 中国与世界深度互动的新型链接范式”. 『世界经济与政治』. 第12期.
- 胡鞍钢·马伟·鄢一龙. “丝绸之路经 济带: 战略 内涵, 定位 和实现路”. 『新疆

- 『师范大学学报』, 第2期(2014).
- 泽高飞, “缘战略的若干思考”, 『地理科学进展』, 第3期(2014).
- 赵可金, “广西可将“一带”与“一路”有机衔接”, (凤凰国际智库, 2016).
- 郑蕾·刘志高, “中国对一带一路沿线直接投资空间格局”, 『地理科学进展』, 第5期(2015).
- “创新的辉一带一路战略构建经贸合作新格局”, 『国际商务财会』, 第6期(2014).
- “国家发展改革委与外交部联合召开推进丝绸之路经济带和海上丝绸之路建设座谈会”, 『国家发改委网站』, (2013.12.16) http://www.sdpc.gov.cn/xwzx/xwfb/201312/t20131216_570632.html, (검색일: 2017.03.30)
- 李克强, “2015年政府工作报告”, 『人民网』, (2015.0305) http://www.farmer.com.cn/ywzt/wlh/tt/201503/t20150305_1016647.htm(검색일: 2017.03.24)
- _____, “李克强总理在第16次中国东盟(10+1)领导人会议上 的讲话”, 『新华网』, (2013.10.09)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10/10/c_125503937.htm (검색일: 2017.03.30)
- 王義桅, “剖析一帶一路: 2049年建成共同體”, 『中國評論新聞網』, (2016.03.26) <http://hk.cmmt.com/doc/1041/7/4/3/104174362.html?coluid>, (검색일: 2017.04.04)
- 張高麗, “深圳市中興通訊股份有限公司調研創新驅動發展的相關情況”, 『人民網』, (2015.12.2) <http://cpc.people.com.cn/BIG5/n/2015/1202/c64094-27878834.html>, (검색일: 2017.04.03)
- 趙可金, “通向人類命運共同體的一帶一路”, 『當代世界』, (2016年 6月刊) <http://theory.people.com.cn/BIG5/n1/2016/0615/c40531-28446116.html>(검색일: 2017.04.04)
- “2017全地球經濟展望”, 『光銀國際』, <http://www.cebi.com.hk/image/cebi-economic10> (검색일: 2017.04.04)
-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검색일: 2017.03.25)

-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新华网』(2013. 11.16) http://news.xinhuanet.com/2013-11/15/c_118164235.htm(검색일: 2017. 03.30)
- 习近平, “俄语国家媒体热议习近平在纳扎尔耶夫大学演讲”, 『人民网』, (2013.09. 07) <http://cpc.people.com.cn/n/2013/0907/c164113-22841760.html>(검색일: 2016. 10.15)
- _____, “主席在博鳌亚洲论坛2013年年会上的主旨演讲” 『新华网』, (2013.04.7)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4/07/c_115296408.htm(검색일: 2016.10.15)
- _____, “中央财经领导小组第八次会议”, <http://politics.people.com.cn/7n/n/2014/1106/c70731/html>(검색일: 2017.03.24)
- _____, “同印度尼西亚总统苏西洛举行会谈”, 『新华网』, (2013.10.02)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10/02/c_117587755.htm(검색일: 2017.03.30)
- _____, “携手建设中国-东盟命运共同体—习近平主席在印度尼西亚国会的演讲”, (2013.10.03) <http://www.fmprc.gov.cn/ce/cegv/chn/bjzl/t1084356.htm>(검색일: 2017.03.30)
- _____, “联通引领发展伙伴聚焦合作:在加强互联互通伙伴关系东道主伙伴对话会上的讲话”, 『新浪网』, (2014.11.08) http://news.xinhuanet.com/ttgg/2014-11/08/c_127192119.htm(검색일: 2017.03.30)
-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联合发布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503/20150300928878.shtml>(검색일: 2017.03.30)
- 张高丽, “在西安主持推进 一带一路建设工作座谈会”, 『新华网』, (2014.10.11) http://www.sn.xinhuanet.com/2014-10/11/c_1112786033.htm(검색일: 2017. 03.30)
- IMF, https://kr.sputniknews.com/korean.ruvr/news/2014_10_09/278411128/(검색일: 2017.03.25)

Jacob Stokes, "China's Road Rules: Beijing Look West Toward Eurasian Integration", *Foreign Affairs*, (April, 1www.foreignaffairs.com/(검색일: 2017. 03.23)

Lucio Blanco Pitlo, "China's 'One Belt, One Road' to Where? *The Diplomat*, (February 17, 2015) <http://thediplomat.com/2015/02/chinas-one-belt-one-road-to-where/> (검색일: 2017.03.30)

OECD, <https://data.oecd.org/>(검색일: 2017.03.25)

Shannon Tiezzi, "The New Silk Road: China's Marshall Plan?", *The Diplomat*, (11.06, 2014) <http://thediplomat.com/2014/11/the>(검색일: 2017.03.22)

Reconstruction of China's one-on-one and political economic operations

Nam Yun Bok(Kookmin university)

Abstract

One-on-one is a comprehensive economic line that forms the transportation network between Europe and Asia. One-on-one is a comprehensive economic line that forms the transportation network between Europe and Asia. It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ingle market leading Europe and Asia by leading the worl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is process is a strategic linkage that includes the political economy and military security, which are lea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economic management by checking the United States and establishing a new neutralization order. It is also a way to eliminate the regional imbalance problem by building one - on - one in Korea and to weaken the independent tendency of minority groups. If the long-term co-construction of one-on-one leads to the actual activities and results of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possibility of rebuilding a new world order is expected. This implies the expansion of expectations about whether it will be an alternative model of the neoliberal market economy.

Key Words

One-on-one strategy, Chinese dream, political economy management, neoliberal market economy

투고일 : 2017. 04. 15 / 심사(수정)일 : 2017. 05. 17 / 게재확정일 : 2017. 05. 22
--